

**장애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학생 지원 활용 자료

1. 장애학생지원센터

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

-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 2) 편의제공
 -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예 : 보조공학기기, 교수·학습기자재 대여 및 관리)
 -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예 : 도우미학생 신청 접수, 선정, 관리)
 - 취학편의, 정보접근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지원
-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예 : 도우미학생 교육과 상담)
- 4)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
- 5) 장애학생 지원계획의 수립(예 :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요구조사 즉, 장애학생 간담회, 장애학생 및 도우미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등 포함)
- 6) 수립된 장애학생 지원계획의 안내·홍보(예 :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안내·홍보물 제작·배부, 장애학생지원센터 웹 페이지 운영 등)
- 7) 장애학생·보호자가 신청한 각종 지원 조치 제공 등

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

- 1)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 교직원과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조사 업무, 장

- 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수립된 계획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시행
- 2)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게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시정 요구하고 처리하는 중재자, 행정가, 정보제공자, 직접적인 지원 제공자, 서비스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시행
 - 3)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대학 내외의 관련 부서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에게 교수·학습 지원, 도우미 지원, 생활 지원, 교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학생의 개인별 장애유형과 특성 등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는 서로 다를 수 있음

2. 장애 바로알기

가. 장애 관련 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를 가진 영·유아, 아동, 청년, 성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복지법」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 및 생활환경 개선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버리기

- 1) 장애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회구성원이다.
- 2) 장애인은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에 의한 어떤 차별이나 편견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 3) 장애인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4) 장애인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문제이다.

다. 장애와 관련된 올바른 표현알기

- 장애인을 올바르게 지칭하는 언어적인 습관은 매우 중요
- 특히 장애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던 과거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올바른 표현이 필요

1) 장애인을 지칭하는 명칭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접미사 자(者)가 어감 상 비하하는 느낌을 주어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장애인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지칭할 수 없고 타인으로부터 지칭당하는 비주체적인 단어라는 등의 이유로 최근에는 호칭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 법적 용어이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칭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2) 장애를 부르는 적절한 표현

적절하지 않은 표현	적절한 표현
정상인	비장애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장애자, 장애우, 병신, 불구자	장애인, 장애를 가진 사람
얇은뱅이, 절름발이, 절뚝발이	지체장애인, 하반신장애를 가진 사람
난쟁이	지체장애인, 왜소증이 있는 사람
장님, 소경, 봉사, 애꾸, 외눈박이	시각장애인
병어리	언어장애인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백치, 정신박약자, 정박아	지적장애인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사람	정신장애인
곱추, 곱사등이	척추장애인

라. 장애인복지법의 중증장애인 범주

범주	해당 장애
1급 ~ 3급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1급 ~ 2급	지체장애(3급 중 상지장애인은 중증에 해당), 호흡기장애, 간장애
2급	청각장애, 신장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마. 장애이해를 위한 참고 웹사이트

-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이해사이트(<http://edu.knise.kr>)
 - 장애이해 관련 자료, 장애인식 관련 내용 제공
- ◆ 국립특수교육원 인터넷 방송국(<http://webtv.knise.kr>)
 - 장애이해 관련 동영상 및 자료 수록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연수원(<http://cyedu.kead.or.kr>)
 - 장애인식개선 과정 무료 사이버 교육 제공
- ◆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http://www.wefirst.or.kr>)
 - 장애인식 개선 교육자료 및 다양한 관련 자료 제공
- ◆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
 - 장애이해 동영상 및 관련 복지정보 제공
- ◆ 아이소리(<http://isori.net>)
 - 장애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3. 시각장애학생 지원

가. 시각장애의 정의

- ◆ 시각장애란 시각계의 손상 등으로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상에서는 시각장애를 장애정도에 따라 1 ~ 6급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등급이 낮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 ◆ 시각장애는 맹과 저시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완전히 시각을 상실하여 점자나 촉각·청각 등 다른 감각을 사용해야 하는 맹(교정시력이 0~0.04미만)과 교정 후 광학적 기구의 도움이나 또는 도움 없이 보유시력을 활용하여 일반문자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약시 또는 저시력(교정시력 0.04~0.3미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시각장애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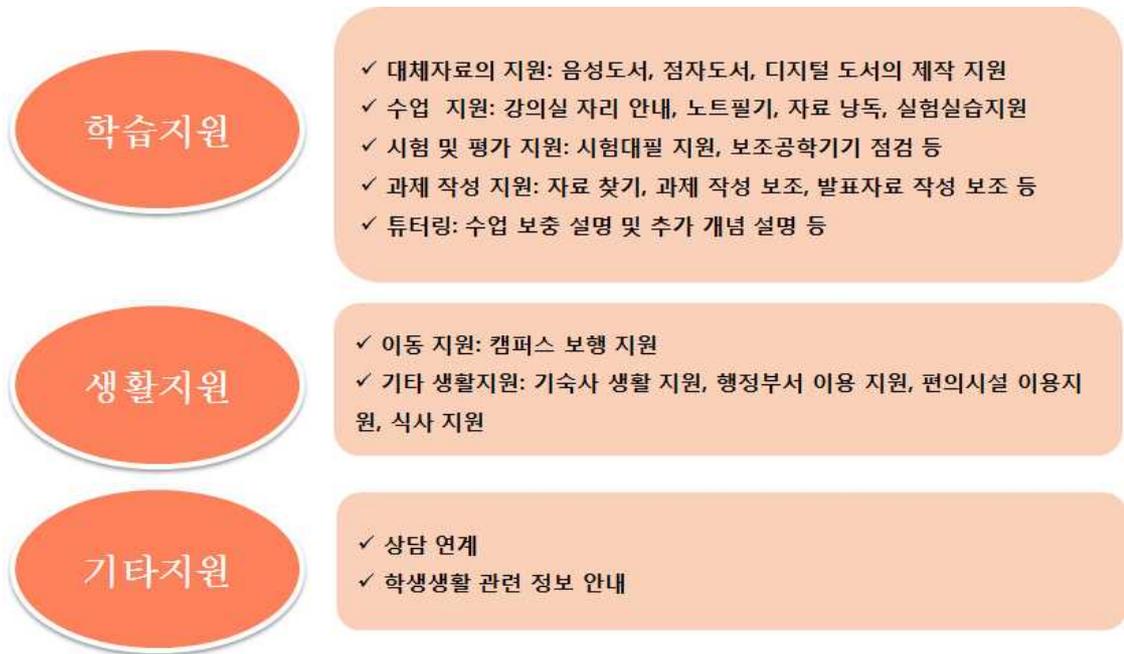
- ◆ 시각장애학생은 걷기와 같은 동적인 운동기능은 느린 편이며, 볼 수가 없으므로 안정적인 자세 잡기 등이 어려운 편이다.
- ◆ 시각장애학생은 문서 및 도서자료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학습자료에 접근 할 수만 있다면 학과수업 및 독서 등 자료 접근을 통해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과 직업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 시각장애 지원

1) 시각장애학생을 만났을 때의 에티켓 및 유의사항

- 먼저 자기소개를 한다. 시각장애학생이 도우미의 얼굴을 알아보고 먼저 인사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름과 소속(학과, 학년 등)의 간단한 정보를 먼저 알린다.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다면 그 사람들의 정보도 밝힌다.
- 대화를 할 때에는 시각장애학생과 눈 맞춤을 한다. 시각장애학생이 선글라스나 색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로 마주보고 눈을 응시하면서 대화해야 한다.
-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나 기자재를 허락 없이 만지지 않는다. 케인(흰지팡이)을 만지거나 안내견을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시각장애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없을까를 생각해본다.

2) 시각장애학생 지원의 유형



가) 학습지원

(1) 수업지원

시각장애학생은 수업내용을 주로 청각에 의존하며, 수업 중에 강의 내용을 직접 필기하기가 어렵다. 또한, 강의실에서 빈자리를 확인하고

자리찾기, 떨어진 물건 줍기, 소지품 챙기기 등이 어려울 수 있고, 도서관 자료 열람하거나 인터넷 자료를 자유롭게 검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수업지원으로는 아래와 같은 역할이 있다.

- ① 이동이 편리하고 장애로 인한 학업 능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안내한다.
- ② 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동영상, 유인물 등을 필기하여 시각장애 학생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
- ③ 시각장애학생에게 칠판에 쓴 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읽어준 다음 설명하고, 외국어는 철자를 불러주고, 한자의 경우는 뜻과 음을 불러 준다. ‘이것’, ‘저것’ 과 같은 말보다는 분명한 지점을 말로 구체적으로 묘사해준다.
- ④ 시각장애학생이 교수자의 허가 하에 강의를 녹음하게 되는 경우 시작 시점부터 녹음기의 버튼이 잘 눌러졌는지를 확인하고 잔여 배터리 등을 확인해준다.
- ⑤ 실험·실습 과목 등에도 가능한 모든 수업 장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장실습을 나갈 때에는 보행안내가 필요한 지 사전에 확인하여 안내한다.
- ⑥ 수업 종료 후에는 개인 물품을 잘 챙겼는지 확인해 주고, 시각적 형태로만 제공되는 칠판공지가 있다면 시각장애학생에게 구두로 전달한다.

(2) 시험 및 평가 지원

시각장애학생은 일반 글자로 된 문제지를 읽을 수 없고, 손으로 답안을 작성하기가 어렵거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구두시험, 점자 또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가 있다. 장애로 인해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 및 평가 지원으로는 아래와 같은 역할이 있다.

- ① 시각장애학생이 치러야 하는 시험의 형태와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교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조치한다.
- ② 시험대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학생이 불러주는 답안을 녹음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한다(장애학생지원센터 사전 협의 필요).
- ③ 시험에 사용할 보조공학기기가 잘 작동되는지 사전에 점검해준다.

(3) 과제작성 지원

시각장애학생은 시각에 의존해야 하는 영화 감상문, 미술관 관람, 만들기, 실험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개의 경우 구어로 발표를 하거나 녹음 또는 한글파일로 제출하는 등 대안적 과제 및 평가를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과제수행에 있어서도 다양한 멀티미디어자료 검색이 어렵고 사진,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활용한 과제를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과제작성 지원으로는 아래와 같은 역할이 있다.

- ① 자료 찾기: 인터넷 자료 검색, 도서관의 책이나 문헌 찾기, 자료 복사, 도서 대출
- ② 과제 작성 보조: 오타자 검토, 잘못된 표현이나 맞춤법 검토, 도표나 그래프 만들기
- ③ 발표 자료 작성 보조: 발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들기
직접 과제를 작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학생이 원활하게 과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튜터링(tutoring)

추상적인 사고를 요하거나 주로 판서의 내용을 보고, 읽고 학습해야 하는 강의에는 시각장애학생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충지도, 심화학습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튜터링을 시행시에는 시각장애학생이 학업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추가 설명을 해주고 개념설명을 도와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긴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 수학, 통계 교과목이나 공간지각능력을 요하는 교과목의 경우에 어려움이 큰 편이다.

나) 생활지원

(1) 이동지원

대학은 초·중등학교와 다르게 강의실을 옮겨 다녀야 한다. 시각장애학생이 넓고 복잡한 대학 캠퍼스에 익숙해지고 원하는 강의실과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보행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시각장애학생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보행연습을 통해 독립생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길안내를 하는 경우 지원 사항과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 안내법: 동행자는 내 위치에 대한 단서를 먼저 구두로 설명한 후 시각장애학생의 옆면에서 반 걸음 앞서 걷도록 한다. 목적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대략적인 거리가 얼마인지에 대해 수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설명한다.

- ② 계단 안내: 계단의 시작 전과 올라간 뒤 계단참에서 잠시 멈추었다 출발한다. 동행자의 몸이 올라가면서 잡고 있는 팔이 올라감을 감지하면서 안내하도록 한다. 계단의 수와 방향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 ③ 출입문 안내: 동행자가 손으로 문을 열고 시각장애학생이 손잡이를 잡고 통과한 뒤 스스로 닫게 한다. 회전문의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열리는지 설명한다.
- ④ 의자 안내: 의자에 가서 멈춘 뒤, 손으로 의자의 등받이나 방석 부위를 만지게 하여, 스스로 확인한 뒤 앉을 수 있게 한다.
- ⑤ 기타 유의사항: 길의 전체적인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도로 상태, 장애물 유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한다. 시각장애학생이 사용하는 흰 지팡이(케인)의 반대편에 서서 걸어야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기타 생활지원

시각장애학생이 기숙사, 행정부서, 편의·복지시설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고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지원역할이 있다.

- ① 기숙사 생활 지원: 시각장애학생의 거주공간인 기숙사에서 식사, 이동, 간단한 청소 등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메뉴 정하기, 배식, 식사, 식기 반납 등을 도와준다.
- ② 행정부서 이용 지원: 이동 및 정보접근의 곤란으로 대학의 행정부서 이용 및 관련업무 처리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학생과 동행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 ③ 편의시설 이용지원: 편의점, 은행, 학생식당, 체육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시 동행하여 시각장애학생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④ 식사지원: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 보다는 밝은 곳이 좋고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에는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식판에 음식이 담겨 있는 경우 음식의 종류와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위험한 물건(유리병, 물잔)은 멀리 놓아준다.

다) 기타 지원

시각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 ① 상담연계: 시각장애학생이 학업 또는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교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안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학생생활 관련 정보 제공: 동아리 활동, 학과 행사 등의 학생지원 프로그램 정보 및 장학금 정보, 학사 정보 등을 안내한다.
- ③ 그 외에도 시각장애학생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4. 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청각장애의 정의

- ◆ 청각장애란 듣는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귀로 소리듣기가 불가능한 농(deaf)과 어느 정도 가능한 난청으로 나뉜다.
- ◆ 양쪽 귀의 소리를 듣는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인 데시벨 수치가 높을수록 듣기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데, 청력손실이 90데시벨 이상이면 귀에 대고 말해도 못 듣는 상태를 뜻한다. 청각장애 등급은 2급 ~ 6급으로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장애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나. 청각장애의 특성

- ◆ 청각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언어모델을 가지지 못해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능력이 낮게 나타난다. 청력이 손실된 시기와 손실 정도에 따라 학업성취도 및 언어구사력, 수화 및 독화 능력 등 의사소통 및 언어능력에서 개별차이가 있다.
- ◆ 말을 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작문능력이 다른 학업능력에 비해 지체되어 있다. 또한, 언어와 의사소통능력에서의 장벽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제한이 많아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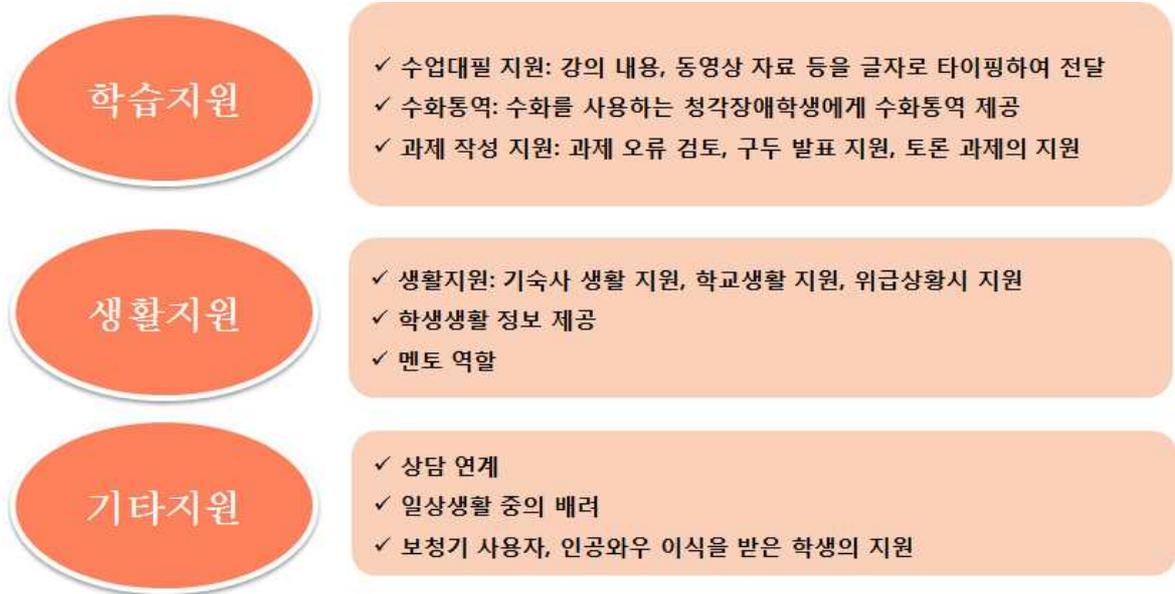
다. 청각장애 지원

1) 청각장애학생을 만났을 때의 에티켓 및 유의사항

- 청각장애학생과 연락할 시에는 전화를 걸기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사용한다.

- 구화법을 사용하는 청각장애학생과 대화를 할 경우에는 동행자가 말을 시작한다는 표시를 해준 후(어깨를 가볍게 치거나 손동작을 취한다), 적당히 크고 약간 느린 속도로 분명하고 바른 입모양으로 이야기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장된 입모양이나 큰 목소리는 방해가 될 수 있다.
- 동행자는 입모양이 잘 보이도록 정면을 보고 대화하며 가능한 다른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는 것이 좋다.
- 글쓰기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구화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시간, 연락처, 외국어 또는 중요정보를 제공할 때 유용하다.
- 이야기 도중 다른 상황(초인종이나 전화벨이 울린 경우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설명해 준다.

2) 청각장애학생 지원의 유형



가) 학습지원

(1) 수업대필 지원

청각장애학생은 음성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의 강의내용, 다른 학생들의 발표내용, 수업 중 사용되는 동영상, 음악 등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청각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에 참석하여 수업내용을 타이핑하여 글자로 전달하는 대필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업대필지원으로는 아래와 같은 역할이 있다.

① 청각장애학생이 강의자의 말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입모양이 잘

보이는 자리로 안내한다.

- ② 청각장애학생과 나란히 착석하여 노트북이나 속기 장치를 사용하여 필기한다. 수업 전에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여 강의 시작과 동시에 필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③ 강의 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고 빠르게 작성하여 청각장애학생에게 전달한다. 학생 개인마다 공부방법과 필기방식이 있으므로 동행자는 청각장애학생의 요구에 맞추어 필기한다.
- ④ 노트북 화면은 청각장애학생이 잘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며, 다른 수강생이나 강의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면 밝기, 타자 소음의 유의하도록 한다.
- ⑤ 수업 후 필기파일은 과목명과 수업날짜 등의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저장하여 제공한다.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개인휴대장치에 저장하여 제공한다.
- ⑥ 청각장애학생이 건강사정이나 급한 용무를 알려올 경우 청각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그 학생을 대신하여 담당교수에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 ⑦ 휴강, 수업일자 또는 강의실 변경, 과제 안내 등 중요한 공지사항은 청각장애학생이 잘 전달받았는지 재확인한다.

(2) 과제 작성 지원

청각장애학생이 토론식 수업이나 개인 발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역할이 있다.

- 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학생은 문어체의 사용, 문법 오류, 어색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므로 청각장애학생이 과제 작성 시 위의 오류가 없는지 검토해 준다.
- ② 구두 발표를 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학생에게 발표 자료를 스크립트 형태로 미리 출력하여 동료 수강생에게 배부한 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문자통역으로 동료 수강생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토론식 수업이나 조별 활동에 청각장애학생이 참여할 경우 함께 참여하면서 진행사항을 즉각적으로 전달해주고 청각장애학생이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

나) 생활지원

청각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예. 동아리, 축제, 학교주변 시설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수업 외의 학교 행사(학과행사, 전시회, 졸업식 등)에 완전한 참여가 어려우므로 학교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1) 생활지원 서비스

청각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에는 아래와 같은 지원역할이 있다.

- ① 기숙사 생활 지원: 청각장애학생의 일생생활(점호, 공지안내)을 보조해 준다.
- ② 학교생활: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편의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불편 신고 등에서 청각장애학생의 요청에 의하여 대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 ③ 위급상황: 청각장애학생에게 상황을 바르게 알려주고,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생생활 정보 제공

청각장애학생에게 동아리 활동, 학과 행사 등의 학생지원 프로그램 정보 및 장학금 정보, 학사 정보 등을 안내한다. 구두 안내와 동시에 시각적인 자료를 함께 제공하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3) 멘토 역할 및 상담 연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함께 의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멘토로서 도움을 준다. 필요한 경우 교내에서 이용 가능한 상담서비스를 안내하여 청각장애학생이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기타 지원

청각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 ① 상담연계: 시각장애학생이 학업 또는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교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안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일상생활에서의 배려: 청각장애학생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장애학생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배려하기가 쉽지 않다. 자연스럽게 청각장애임을 알리고 다른 학생들이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청각장애학생을 배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보청기를 착용한 청각장애학생의 보청기에서 “삐~” 소리가 나면 살짝

안내하여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게 해 준다.

- ④ 청각장애학생이 전화를 걸어줄 것을 요청하면, 원하는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응해 주도록 한다.

5. 지체장애학생 지원

가. 지체장애의 정의

- ◆ 지체장애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환으로 신경, 근육, 팔, 다리, 척추 등의 이상으로 오는 장애를 말한다. 일상생활이나 교수학습의 문제, 나아가 사회생활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영속적인 장애이다. 의학적으로 병변의 원인이나 치료방법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 ◆ 지체장애는 신경학적 손상, 척추손상, 근골격 손상, 심폐손상으로 분류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뇌성마비나 경련성 질환(간질), 진행성 근위축증(근이양증), 골 형성 부전증, 척수장애 등이 있다.

나. 지체장애의 특성

- ◆ 지체장애는 장애 원인과 상태가 개인마다 다양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중복장애로 인해 낮은 인지능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신체적인 기능에만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장애학생의 지능과 다름이 없다. 지체장애 학생은 근육의 협응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보일 수 있는데 휠체어, 목발, 교정기 등의 보장기구가 필요하다. 지체장애학생 중 뇌성마비 학생의 경우, 언어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 ◆ 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의 제한, 외형상 다른 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좌절 · 정서적 불안정이나 부적응 등으로 사회 심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다. 지체장애 지원

1) 지체장애학생을 만났을 때의 에티켓 및 유의사항

- 지체장애학생에게 만날 장소와 시간을 먼저 묻는다.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장애학생이 알고 있을 수 있다.
- 발음이 불분명하여 소통이 어려운 장애학생과 대화할 시에는 편안한 자리에서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필요한 경우 글로 써서 대화한다.
-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지체장애학생에게 확인한 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체장애인이 넘어지는 경우 사람에게 따라서는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나는 것이 더 편한 경우가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묻고 돕는 것이

좋다.

- 휠체어 사용자와는 앉아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으며 대화할 때에는 서로 마주보며 대화한다.

2) 지체장애학생 지원의 유형

가) 학습지원

(1) 수업지원

지체장애학생은 장애특성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완전한 참여가 어렵고 보편적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다. 또한, 섬세한 손동작이나 운동이 요구되는 수업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수업 지원으로는 아래와 같은 역할이 있다.

- ① 강의실의 위치, 이동 최단경로, 수업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을 사전에 알아둔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강의실에 출입, 이동, 수업참여에 어려움이 없는 편리한 좌석으로 안내한다. 출입문에 가까운 곳, 휠체어 공간이 충분한 곳이 좋으며, 장애학생만 동떨어진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 ③ 전용 책상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의 신체조건에 맞도록 높낮이와 위치를 조정해 준다.
- ④ 노트필기, 책장 넘기기, 과제 제출, 컴퓨터 등 보조기기 사용 지원 등 지체장애학생의 요구를 확인하여 수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⑤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재나 자료를 스캔하여 제공하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⑥ 견학, 전시관람 등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함께 검색하고 필요할 경우 사전답사를 통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⑦ 의료처치 또는 건강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잦은 입원, 병의 악화로 결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상황을 담당교수와 학교에 알린다.

(2) 시험 및 평가 지원

지체장애학생이 시험을 치를 때 대필, 대독의 지원을 제공한다. 지체장애학생이 불러주는 답안을 작성해주거나, 개인발표를 수행하는 경우 발표내용을 대신 읽어줄 수 있다(장애학생지원센터 사전 협의 필요). 시험장소가 접근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담당교수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조치하도록 도와준다.

(3) 과제작성 지원

지체장애학생이 과제물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찾기를 도와주고 답사 등 교외활동이 필요한 경우 동행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지체장애학생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지원이 필요하다.

(4) 실험·실습 지원

실험·실습과정에서 세밀한 손작업 등에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실험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실험·실습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5) 보조기기 사용 지원

지체장애학생 중에는 의지나 보장구를 사용하는 학생이 다수 존재한다. 의지는 신체 결손 부위용 인공 대치이며, 보장구는 신체부위에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대치하는 장치이다. 의지나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학생의 의지와 보장구의 기능 및 조작을 알고, 지체장애학생이 학습과 생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생활지원

(1) 이동지원

지체장애학생들은 이동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학교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이 적은 편이다. 지체장애학생이 학교의 시설을 잘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① 학교 내의 편의시설 정보, 이동 최단경로, 지체장애학생이 익숙하고 쉽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미리 파악한다.
- ② 교통사정, 날씨 등 지체장애학생의 이동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속시간보다 항상 먼저 도착하고 시간 조절을 잘 해야 한다.
- ③ 보조기기의 오작동, 고장, 또는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이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비상연락처를 알아둔다.
- ④ 장애학생의 건강문제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변인들이 필요한 응급조치요령, 의료기관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 ⑤ 지체장애학생이 차량이용을 하는 경우 승하차를 보조하고 휠체어를 싣거나, 기타 소지품을 들어주는 등의 도움을 준다.

* 휠체어 장애학생 지원 방법

- 휠체어를 밀어줄 때에는 장애학생에게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묻는다.
- 휠체어를 밀어줄 때에는 휠체어 크기와 발판이 튀어나와 있음을 주의해야 하며 지형에 유의하고 험한 길이나 질은 곳은 피하여 천천히 밀어주어야 한다.
- 수동휠체어만 사용하던 지체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본인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동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2) 기숙사 지원

지체장애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이동, 간단한 청소, 식사, 세탁물 맡기기, 개인위생 관리, 보조기기 착용, 화장실 사용 등 일상생활 보조를 한다.

- ① 장애학생이 온종일 같은 자세로 있었다면 자세를 바꾸는 것을 보조하고 뭉친 근육이 있다면 간단한 마사지로 풀어주는 등 편안하고 안락한 자세를 취하고 휴식하도록 보조할 수 있다.
- ②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배식을 도와주고, 음식물 및 음료의 섭취를 보조한다.
- ③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응급요령을 익힌다. 특히 간질에서 깨어난 후 장애학생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한다.

(3) 학교생활 정보 제공

- ① 지체장애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기 원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 ② 교내외에서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 신청·대여 정보 등을 안내해준다.
- ③ 학교의 편의시설 이용의 불편사항, 보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지체장애학생의 요청에 의하여 대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 ④ 지체장애학생이 학업 또는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교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안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기타 지원

지체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 ① 상담 연계: 지체장애학생이 학업 또는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교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안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학생생활 관련 정보 제공: 동아리 활동, 학과 행사 등의 학생지원 프로그램 정보 및 장학금 정보, 학사 정보 등을 안내한다.
- ③ 그 외에도 지체장애학생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